

# 외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니 불교가 재미있네



운문사 승가대학 단체팀의 경연 모습. 'I'm Everything'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는 단체 최대 인원인 27명 참여했으며, 한편의 종합예술공연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단체팀의 경연 모습. 'SHOW ME THE BUDDHA' 팀은 영어 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청암사 승가대학 고우 스님의 경연. 고우 스님은 'H3 비타민'을 통해 108배,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회 대회 대상 수상자들, 운문사 승가대학 단체팀 대표 혜정 스님(사진 왼쪽)과 개인 부문 동학사 승가대학 진흥 스님(사진 오른쪽)

## “글로벌한 스님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문 대상 진흥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제가 한국불교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진흥 스님(사진, 동학사 승가대학)은 수상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흥 스님은 동학사를 찾은 젊은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 못하면 스님 된다’는 말에 받은 충격을 진솔히 소개하고 승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승가교육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연히 호응이 높았다.  
진흥 스님은 자신의 발표처럼 승가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향후 포부로 밝혔다. 승가 영어 교육 전문 기관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 학과에도 입학할 계획이다.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승가의 이미지를 혁신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無我’ 가르침 전하려 했습니다

단체부문 대상 운문사 승가대학

이번 대회 경연 참가자 중 단연 백미(白眉)는 운문사 승가대학의 발표였다. 스케일부터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무대 연출이 가능했던 것은 출가 전 네덜란드에서 유학해 안무 연출을 전공했던 혜정 스님이 있어서다. 하지만 혜정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기 위해서 공연의 형식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경연대회에서 우리의 발표가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이 설한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일편이라도 전하기 위한 법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여름방학부터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전원 2학년으로 여름방학을 운문사에서 대회를 준비하며 보냈다. 혜정 스님은 “여름방학에 은사 스님 사찰로 돌아가지 않은 도반들이 같은 반에 있었고 이들과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사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글=신성민 기자·사진=노덕현 기자

## 조계종 교육원, 14일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See! What is Buddhism.(자! 불법이란 무엇인가)  
I fought the Dead and Live.(나는 삶과 죽음과 싸웠다)  
You can't but never know.(당신은 절대 알 수 없다)  
Four Noble is a truth.(네 가지의 진실한 진리들)  
Buddhism is never fault.(불법은 절대 틀리지 않아)  
Do you know what it means?(이 뜻을 알겠는가?)

경쾌한 비트박스가 대회장을 채우니 이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분한 학인 스님이 영어로 랩을 친다. 다른 편에서 있던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랩을 받아 대승불교를 설명하는 랩을 이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이 10월 14일 한국불교 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결선은 학인 스님들의 외국어 실력과 회색 장삼 속에 숨은 재기 넘치는 '끼'에 다시 한번 놀라는 자리였다.

9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개인 13명(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영어 10명)과 단체부 6팀(영어 5팀, 중국어 1팀)이 1달 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수준 높은 발표를 선보였다. 외국어 스피치의 발표 방식도 영어 랩부터 뮤지컬, 연극, 토크쇼까지 다양했다.

### 유창한 외국어에 불교적 메시지까지

개인 부문 경연은 주로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다. 5분 간 혼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학인 스님들은 이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불교적 메시지로 채웠다. 특히 예선보다 훨씬 깔끔한 진행이 돋보였다.

‘승가 교육 현대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영어 개인 부문의 동학사 진흥 스님은 사찰을 찾은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자신을 가리키며 “너도 공부를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었다. 스님은 승가 이미지가 현대인에게 친숙하지 못하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승가교육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엄봉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청암사 승가대학 고우 스님은 'H3 비타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고우 스님은 108배와 명상, 미고사(ITI,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로 이뤄진 'H3 비타민'은 치유(Healing), 희망(Hope), 행복(Happiness)의 효능을 가져온다고 재미있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어 개인 부문의 통도사 승가대학 금행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인연과 사리불·마등 존자 일화를 소개하며 인연의 중요성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일본어 개인 부문 경연에 참가한 동학사 승가대학 마승 스님은 동학사 남매탑에 얽힌 설화를 통해 대승불교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톡 형식의 P.P.T에 직접 그린 캐릭터까지 삽입해 전달력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끌었다.

### 예선보다 화려해진 단체 경연

단체 부문 경연은 예선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다. 단체팀들은 외국어 연극, 뮤지컬, 랩 배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1학년 학인 스님들로 구성된 'SHOW ME THE BUDDHA' 팀은 영어 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탐·진·치’를 주제로 영어 연극을 진행했다. 학인 스님들의 영어 실력이 깔끔한 구성과 호연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봉녕사 승가대학 역시 무상 등의 주제를 토크와 합창 등으로 재미있게 풀었다.

압도적인 스케일을 선보인 곳은 운문사 승가대학이다. 'I'm Everything'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

## 대상에 진흥 스님·운문사 단체 수상 9월 예선 거친 개인·단체 실력 겨뤄 외국어 랩·연극 등 발표 방식 다양 ‘재미있는 불교’ 확인한 축제의 장

는 한편의 종합예술공연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단체 최대 인원 27명이 참여한 운문사 승가대학 발표는 무용, 마인, 합창 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를 표현했다. 특히 후반부 ‘자비송’ 합창은 장엄 그 자체였다.

### “다음 대회 더욱 기대된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개인 부문 동학사 승가대학 진흥 스님, 단체 부문 운문사 승가대학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청암사 승가대학 고우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 금행 스님이 개인부문 수상을,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단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 개인부문은 운문사 승가대학 법여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학 마승 스님이, 단체 부문은 봉녕사 승가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결선 진출자에게는 원력상이 수여됐다.

대회 심사위원장 종호 스님(조계종 교육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불교를 해석하고 나타내는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대화된 형식으로 불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결선 참가 스님들은 외국어 등 경연대회가 ‘짧고 재미있는 불교’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청암사 승가대학)은 “영어를 극복하고 싶어서 도전했다”면서 “학인 스님이 오롯이 주인공이 돼 대회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열정과 도전,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경연대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승 스님(동학사 승가대학)은 “한국불교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서는 비불자들의 호응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문공부 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도 이뤄져야 하는 것은 현대사회 승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분해 랩을 했던 지수 스님(동국대 서울캠퍼스)은 “스님이 랩을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불교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불교도 재미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이 같은 경연대회는 포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신성민 기자·사진=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6주년 개산대재 보살계·만등불사·중악 은빛음악회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 809년) 해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6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병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 (2015)년 10월

## ■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4일 토요일(음 9.12)

- 10월 24일(토) 오전 9시 30분  
개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 차례제(부도전)
- 오전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 오후 3시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 은빛 음악회
- 오후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참금 : ·보살계 - 1인 2만원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 9시)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 9시) → 경산 → 은해사  
포항역(오전 8시 30분) → 영천 → 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 보살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니는 수행덕목인 보살계(菩薩戒)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다시 보살계를 받으므로서 다시 한번 자리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나 큰 공덕입니다.

## ■ 시민과 함께하는 중악(中岳) 은빛 음악회

□ 일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 출연 : 금잔디, 현숙, 김국환, 정수라, 한서경, 박규리, 김미송 외

※ 개산법요식이 끝난후 국악공연과 선화여고 댄스공연,  
3사관학교 군악대공연도 있습니다.



www.eunhae-sa.org

■ 문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 전화 : 종무소 (054)335-3318~9 /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말사